

24.

성능평가(BMT)를 통한 ICT 제품 경쟁력 강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소비자가 SW, 네트워크 장비 등 ICT 제품을 구매하려 할 경우 제안서 평가만으로 기술성 평가가 진행됐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성능을 검증할 방법을 갖고 있지 못했다. 소비자는 언제나 최고의 제품을 구매하기를 원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이상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제품들의 특징과 장단점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과 역량이 부족하다. 또한, 정부·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는 제품 사용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나 오류로 인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특히 당시 국내 ICT 제품 시장에서는 대형 벤더들 위주로 제품이 선택되는 일명 ‘잠김효과(Lock-in)’가 극에 달해 있었다. 높은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된 대형 벤더는 기술지원 축소, 유지보수요율 인상 등의 횡포를 부렸고, 이에 따른 피해는 전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국내 중소 개발업체들은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도 국내 시장 진입장벽을 뚫기가 어렵게 되자 공정한 방법으로 품질·성능 검증을 통해 경쟁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높아져 갔다.

소비자 피해 방지와 공정 경쟁을 위한

제3자 공인시험기관 BMT

BMT는 동종 제품 간의 품질·성능을 비교, 분석하는 시험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는 객관적인 비교 정보를 개발자에게는 취약점 보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효과적인 BMT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환경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들, 관련 도메인에 대한 해박한 지식, 공정한 원칙과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국내 중소 개발업체들은 BMT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만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 그렇다고 이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 업체 또한 전무한 상태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해외시장에서는 필수적으로 BMT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국내업체는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비용을 지불하고 해외에서 BMT를 진행해야만 했다.

또한 BMT가 제품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최적

의 수단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은 제품 구입에 BMT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고 개발업체에서는 자사 제품의 홍보를 목적으로 BMT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BMT를 실시할 경우 자사 제품에 유리한 측정기준과 방법 등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3의 공인된 기관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BMT를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TTA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비교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인지도 싸움과 마케팅 경쟁의 각축장으로 변질 돼 있던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을 철저한 기술 본위의 시장으로 경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한편, 우수한 국산 제품과 기업을 발굴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BMT를 시작하였다.

공신력 있는 BMT 평가체계 구축부터

BMT 의무화 제도 시행까지

TTA는 개발자나 구매자로부터 의뢰 받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만 통보하는 형태로 BMT를 시작했으나 이후 임의 수거 방식 BMT, 분리발주 소프트웨어 BMT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범위를 넓혀갔다. TTA는 국방부 전산정보관리소 DBMS(2008년), 보건복지부 DB암호화(2016년),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인공지능플랫폼(2018년)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BMT 외에도 2009년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DDoS대응장비, 주택공사 홈네트워크시스템, 국방부 국방BTL사업 등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다양한 BMT를 수행했다.

BMT는 대규모 구매사업에서 기술성 평가 수단으로 사용돼 그 결과가 수주성적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차별화 수주전에서 탈락한 나머지 기업들은 BMT 절차에 따르는 수수료는 물론 전 과정에 투입된 인력·장비 등 적잖은 비용을 부담하고도 당장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규모가 작은 개발업체일수록 회사의 사활을 걸고 BMT에 참여했다. 자사에 유리하지 않으면 경쟁사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이의제기를 남발하는 등 BMT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TTA의 입장에서도 지나치게 과열된 상황에서 BMT를 진행하다 보니 불필요한 불만이나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TTA의 역할은 참여업체 모두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BMT 절차를 구축하는 것



● 2012년도 제2차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보안구조 무료 BMT (2012. 6. 7)

뿐이었다. 이에 TTA는 객관적 시험 평가 방법론 개발에着手해 다수의 원칙과 절차들을 개발했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 정밀하게 다듬었다. 특히 업체의 이의제기를 냉철하게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의 검토위원회를 운영하여 BMT의 객관성을 높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TTA가 수행하는 BMT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정부 또한 BMT를 통한 우수 제품 구매에 관심을 기울여 ICT 제품 구매 시 BMT 수행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우 산업계의 요구로 2015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개정, 2016년부터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해 BMT 의무화 제도를 도입했다. 같은 해 TTA는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국가공인 BMT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아 공신력을 가진 유일한 BMT 시험기관의 위상을 갖추게 됐다.

BMT 의무화 이후에도 다수의 업체들이 BMT 비용·인력 부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고, 이를 수용하여 BMT를 구매 사업 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수행하고 이 결과를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주요기능 BMT를 시행하였다. 2017년 TTA는 DBMS, WAS 및 EAI 분야의 주요기능 BMT를 수행했으며, 2018년에는 DB암호화, 백업소프트웨어, 가상화소프트웨어 분야의 주요기능 BMT를 수행할 예정이다.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기관 지정서 수여식(2016. 1. 15)